# 제주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논란 재점화

**올해 1월 기지 내 육상 44만5000여㎡ 지정 후 4개월 만**
**해군 "해상수역 군사시설로 지정해야"… 도 "반대한다"**
**도·해군 5년째 평행선… 군사보호구역 지정 강행 우려**

해군이 크루즈선박이 오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방파제 내측 전체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제주해군기지 육상 시설 전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4개월 만이다.

7일 제주도와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따르면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지난 4월 23일 이성열 사령관(소장) 명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 요청 공문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해군 제주3함대사령부는 협의 과정에서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 접안부두와 입·출항로, 선회장 등 항내 전체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하나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군은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그간 10여 차례 진행된 협의에서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귀포시 강정동에 들어선 제주해군기지의 면적은 육상 44만6000㎡, 해상 73만4000㎡ 등 총 118만㎡다. 국방부는 이중 해상 수역만 남겨놓고 기지 내 육상 44만5000여㎡와 해군초소가 있는 남방파제 끝단 2000㎡를 올해 1월 9일 각각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내에서, 제한보호구역은 500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군의 계획대로 제주해군기지 해상 수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이면 크루즈선은 입항 7일 전에 운항 일정을 부대장에게 통지한 후 허락을 얻어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군의 방침대로 추진되면)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육성하려는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만다"면서 "군이 훈련을 이유로 이미 정해진 크루즈선 입항을 돌연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3자가 맺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는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곤 언제든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협약이어서 법적 강제성이 없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라고 규정했을 뿐 반드시 지자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도가 계속 반대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원활히 문제를 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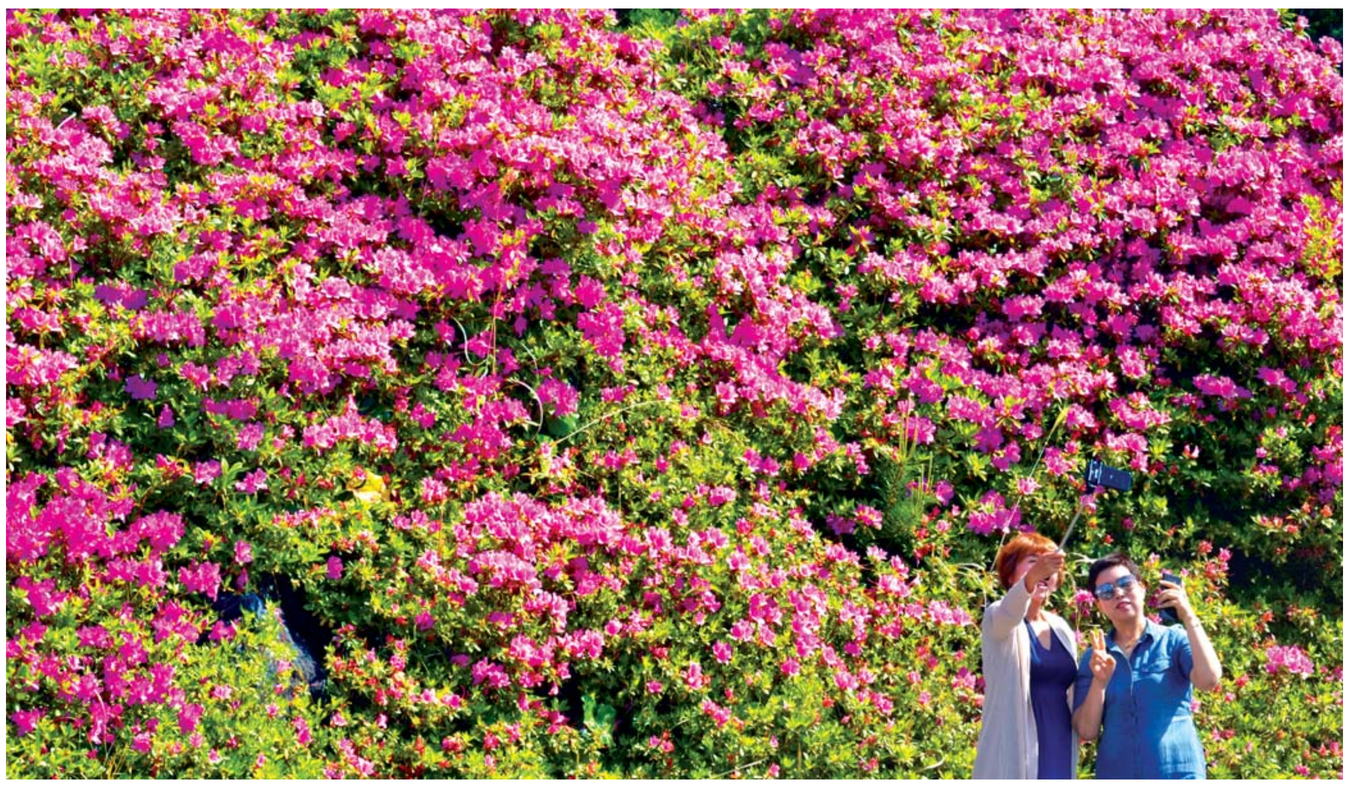
## 서귀포 전역 특별방역

서귀포시는 지난 6일 관광지를 포함한 서귀포 전역에 대해 특별 방역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연휴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약 19만명으로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직영 관광지 5곳에는 하루 평균 9323명이 방문해 총 5만5938명이 다녀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전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7개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 780여명, 공무원 400명, 군인 10명 등 총 1200명을 투입해 관내 2800여 개소에 대한 특별 방역을 실시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철쭉 배경으로 '찰칵'** 7일 서귀포시 산록도로변에 만개한 철쭉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국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 교육공무직 "등교 개학 학교운동부 대책 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진로 앞둔 학교운동부에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운동부 활동이 사실상 어려웠다. 단체훈련을 전혀 못하다 보니 실전감각과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여름에 대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부상을 입어 진로가 걸려 있는 3학년 학생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가 13일 고3부터 순차적 개학 방침을 발표했지만 학교운동부는 학년별로 훈련을 재개해서는 곤란하다"며 "단체운동의 경우 일정한 인원수가 보장 돼야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이로 인해 운동부 선수·지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8일 금요일 음 4월 16일 (8물)

기상정보

### 흐리고 한때 비

제주도는 차차 흐린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16℃, 낮 최고 기온은 21~24℃의 분포를 보이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박무가 낄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오 전 | 강수 확률 | 오 후 |
|---|---|---|
| 20% | 제 주 | 70% |
| 20% | 성 산 | 70% |
| 20% | 고 산 | 70% |
| 20% | 서귀포 | 70% |

| | | |
|---|---|---|
| | 해뜸 05:39 / 해짐 19:22 | 달뜸 20:22 / 달짐 06:14 |
| 물때 | 만조 10:57 / 23:48 | 간조 05:32 / 17:33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 | | |
|---|---|---|
| 내일 | 흐리고 비 | 19/25℃ |
| 모레 | 구름 많음 | 15/20℃ |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
|---|---|
| 관심 | 높음 |

### 전통시장 갑시다!!

| 전통시장명 | 장 서는 날 |
|---|---|
| 제주시민속오일장 | 2, 7 |
| 한림민속오일장 | 4, 9 |
| 세화민속오일장 | 5, 10 |
| 함덕오일장 | 1, 6 |
| 고성오일장 | 4, 9 |

| 전통시장명 | 장 서는 날 |
|---|---|
| 서귀포향토오일장 | 4, 9 |
| 성산오일장 | 1, 6 |
| 중문향토오일장 | 3, 8 |
| 표선오일장 | 2, 7 |
| 대정오일장 | 1, 6 |

■ **교육부 7일 등교 개학 관련 '세부지침' 발표**

## 등교시 마스크 착용·문 개방 후 에어컨 가동

**도교육청 "제주형 계획 수립"**

등교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가 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먼저 감염 예방 관리 수정본을 보면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모바일 또는 PC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가족 해외여행력 및 자가격리 유무 등의 진단 항목을 마련했다. 만약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지만, 출석은 그대로 인정된다.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에어컨의 경우는 일과시간 건물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상시 개방,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한 상태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도록 권장했다. 다만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 자제를 권고했다.

이어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기저질환과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시험범위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되며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은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도 하달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제주형 등교 개학 계획을 수립, 오는 11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합 격
제9회 변호사 시험

부 지 석
(부 : 부문옥 · 모 : 김순희)
(세화초, 대기고15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동리 외가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19대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장

고 정 화
제19대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천 우 전 기
임 직 원 일 동

축 CONGRATULATIONS
합 격
제9회 변호사 시험 제8회 변호사 시험

서 현 주 서 경 주
부: 서익수(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모: 오명녀(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외조부: 오형대, 외조모: 정해자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가 가족 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선거구)

송 재 호
제21대 국회의원(제주시갑)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표선면 향우회
회 장 이 익 중 외 회원일동